

# 라틴아메리카의 생성과 확장

일곱째 마당  
Inca 제국

# 남미 안데스 문명권

## ➤ 1. Chipcha

➤ 모계상속의 독특한 전통

➤ Colombia의 Bogotá와 Chicamocha 고원을 중심으로 번영

➤ 스페인의 정복 당시 안데스 산맥 북쪽지방에서 가장 왕성한 문화권을 형성

➤ 스페인군 당도시 잉카제국과의 전쟁 가능성이 있었음

➤ 인신공양

➤ 황금박물관(el Museo de Oro)

## ➤ 2. Chavín

➤ 기원전 900년경-기원후 200년경

➤ 중앙고원지방

➤ 높은 수준의 도자기 제작 기술



자료출처: 본인



자료출처: 본인



자료출처: 본인

### 3. Nazca

- 기원전 900년경-기원후600년경
- 페루 남부해안 중심으로 발전
- 주변문화와 비교되는 독립적 문화
- 거대한 지상의 그림들(현대문명의 수수께끼)

### ➤ 4. Tiahuanaco

- 기원후 2세기-8세기
- 페루 고원지방에서 융성(해발 평균고도 3800미터)
- 띠띠까까 호수 주변이 기원지

### ➤ 5. Inca 제국



자료출처: [commons.wikimedia.org](https://commons.wikimedia.org) (Líneas de Nazca)



자료출처: [commons.wikimedia.org](https://commons.wikimedia.org) (Líneas de Nazca)





자료출처: <http://en.wikipedia.org> (페루 띠띠까까호수)



자료출처: <http://en.wikipedia.org> (페루 띠띠까까호수)



자료출처: <http://en.wikipedia.org> (페루 띠띠까까호수)

# Inca 제국

- Quechúa족
- 12세기경 띠띠까까 호수에서 기원
- 스페인 침공당시 약 2천만명의 인구
- 잉카의 수도 Cuzco: 약 20만명의 인구
- 작은 키(1.59-1.62미터), 강한 직모, 넓고 작은 코, 사지에 비해 발달한 흉부
- 페루 전역, 볼리비아,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북부, 에쿠아도르, 콜롬비아 남부=> Quechúa어 사용
- 태양신 숭배=> 자신들이 태양의 후예라고 생각

# 네개의 세상 (los cuatros edades del mundo)

- 1. 첫 번째 세상(태양):
  - 비라코차신의 인간시대(Wari-Viracocha-runa),
  - 전쟁과 이에 따른 질병으로 인류전멸
- 2. 두 번째 세상(태양):
  - 신성한 인간(Wari-runa), 태양이 지구를 계속해서 돌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 지쳐 쓰러졌고, 태양을 다시 돌게 하기 위해 인간들이 제사와 제물을 바침=> 하늘의 불이 모든 것을 앗아가고 인류전멸
- 3. 세 번째 세상(태양):
  - 전쟁의 인간(Purun-runa), 우주의 혼돈, 모든 인간들의 여성화=> 동성연애로 인류전멸
- 4. 네 번째 세상(태양):
  - 잉카의 불완전한 세상이 가고 완전한 세상 도래
  - 태양의 신 비라코차가 주관하는 세상

- 비라코차 신의 계시에 따라 1200년경에 있었다는 전설상의 대홍수 이후에 이주 시작
- 망코 카팍이라는 최고지도자의 금지판이가 가장 깊이 박히는 곳에 도읍을 정하라는 계시
  - => Cuzco(세상의 배꼽)에 도읍 정함
- 잉카제국 이전에 대규모의 인신공양이 행해졌던 흔적
  - => 잉카제국 시대에는 인신공양의 횟수가 대폭 줄어듬 (많은 경우 동물[야마]로 대체), 중요한 경우에만 인신공양
  - =>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삼음(동굴이나 산속에 버림), 스페인 정복 전 100여년 동안 잉카인들 피정복민들 어린이 제물로 바침(피정복민들의 반발, 스페인 사람들 해방자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음)
  - => 어린아이들이 잉카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하여 준다고 생각

# Inca의 통치구조

- Cuzco 주변에 삭사와망(Sacsahuamán), 오얀따이따보(Ollantaytambo) 등의 요새 건설
- Cuzco의 중앙광장에 동서남북의 네방향으로 거대한 도로 건설
  - => 제국을 네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통치, “네 방위제국”
- 거미줄 같은 도로망(약 30,000km에 달하는 도로의 길이)
- 찌스끼(chasqui)=> 전령사
- 타부족과의 전쟁 후 패배자를 형제로 취급(현실적으로 불가능)
- 제국 전체를 아이유(ayllu)라는 기초 공동체 단위로 구성
  - => 10개 아이유 단위로 묶어 통치

- 토지의 공유화, 삼등분해서 경작
  - => 1/3 태양신의 몫, 1/3 잉카제국의 몫, 1/3 공동체의 몫
  - => 가족의 숫자에 따라 토지 배분하여 경작
- 인구변동에 따른 부작용 막기 위해 한 해의 수확이 끝난 다음 새롭게 토지 분배
- 공산주의적 경제체제
  - => 빈부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음
  - => 경제력 향상의 저해요인
- 노역종사를 위해 제도적으로 코카를 배급
  - => 배고픔을 잊고 즐겁게 일하게 함
- 잉카인들은 스스로를 태양신의 후예라 생각=> 정실부인을 근친상간을 통하여 얻음, 첩의 허용



- 정실부인의 자식에게만 후계자 권리 인정, 소생이 없는 경우에만 다른 첩의 아들을 후계자로 인정
- 공통조상을 가진 씨족집단의 개념
  - => 원칙적인 족내혼
- 인질정책
  - => 점령당한 지역 귀족들의 후계자를 Cuzco에 인질로 데려옴
- 제국전역의 공용화 정책=> Quechúa어
- 문자가 없는 케추아어의 특징
  - => 끼뿌스(quipus)라는 매듭을 이용해 의사전달
  - => 문자의 역할
- 바퀴가 없는 문명
- 마추삐추의 수수께끼 (1911년 미국인 발견)



자료출처: <http://en.wikipedia.org> (페루 마추피츄)



자료출처: <http://en.wikipedia.org> (페루 마추피추)



**자료출처: <http://en.wikipedia.org> (페루 마추피추)**

# Inca 제국의 최후

- 우아이나 카팍('가치있는 젊은이' 1493-1527)
  - => Quito를 포함하여 잉카제국 최대의 전성기 구사
  - => 장례식 때 1,000여명의 자원자들 함께 순장
- 곳곳에서의 잉카에 대한 반란
  - => 반란군 학살, 반란지역의 주민 타 지역으로 소개
  - => 잉카에 대한 반감 고조(Quito에서 40마일 떨어진 오타 발로에서 전투가 끝난 후 반란군 전체를 학살, 호수에 던짐)
- 우아이나 카팍 사후 그의 두 아들 우아스카르와 아타우알파(이복형) 왕위계승전쟁
- 아타우알파의 승리, 1532년 우아스카르 살해
- 내전 종식 후 제국의 재정비를 위해 여행 중 스페인 군대 상륙 정보 입수

# 잉카 패망의 요인

1. 발달된 무기의 결여

2. 전염병 창궐

3. 왕의 신성한 예언

아타우알파의 아버지였던 후아이나 카팍은 죽기 전, 수염을 기른 인간들이 먼 바다로부터 도래해서 잉카 세계를 파괴할 것이라 예언

=> 잉카의 주신 비라코차의 사자들

(비라코차: 인류를 창조한 뒤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남긴 채 서쪽으로 떠나감)

4. 내전

➤ 1532년 5월 13일

=> 파나마에서 세척의 범선 출항(200여명의 스페인 군사, 말 27필), Francisco Pizarro(1478-1541)

➤ 피정복민들의 잉카에 대한 반감 재빨리 포착(중앙정권의 수확물 강탈, 희생제물을 위한 아이들의 조공 강요)

➤ 페루 연안 도착 후 두달 간의 행군 끝에 아타우알파가 머물고 있는 온천지 Cajamarca 도착(1532년 11월 15일)

➤ 아타우알파 접견 허용, Vicente 신부 앞에서 성경을 땅바닥에 던짐(용서할 수 없는 죄): [신부의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 도중 왕의 발언 "Atac"(아, 머리아), 스페인 군대 "Ataque"(공격)으로 오해]

➤ 아타우알파 포획, 감금

➤ 왕궁의 방 하나를 가득 채울 황금을 주겠다고 약속, 이행

=> 걷어진 황금 1/5 스페인 국왕의 몫,  
나머지 부하들과 배분

➤ 잉카인들의 반란 소식에 아타우알파 처형

➤ 향후 40여년간 잉카인들의 투쟁

➤ 1533년, Pizarro의 Cuzco 입성(잉카인들 돌칼로 싸움)

➤ 스페인 정복자들의 내분, 1541년 6월 26일 Lima의 저택에서 암살당함



# 외적 저항과 내적 위협

1. 아타우알파 사후 인디오의 거센 저항
  - Azteca 정복과는 달리 Inca의 정복은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, 장기화 됨
  - 잉카 지도자 망코 잉카 유팡키 아래 단결
  - 1572년 망코의 후손 중 한명인 투팍 아마루 참수=> 항쟁 종식
2. 페루 정복자들간의 끊임없는 내분
3. 부왕들이 왕권 확립 후 인도적인 '인디아스법 (Ley de Indias)' 준수
  - => 정복자들과 국왕 사이의 내분

# 흑인노예

- 부족한 노동력 메우기 위해 아프리카 흑인노예 수입 (흑인노예, 신대륙 질병에 적응 잘함 e.g. 말라리아)
- 스페인은 노예무역을 아시엔토를 통해 다른 국가에게 위임
- 노예무역과 플랜테이션
- 18세기 중엽 영국의 설탕수요 증가=> 아메리카 대륙의 사탕수수 농장 활성화=> 아메리카 대륙의 노예수요 증가=> 영국에 대한 설탕 수출과 영국으로부터의 공산품 수입
- 18세기 중엽의 노예수용 증가로 노예가격 상승=> 노예구입지역 확대(아프리카 서쪽 해안에서 내륙으로 확대)

- 아프리카 인구사회학적 변화=> 여성보다 남성 포획량 많음=> 남녀 성비 불균형=> 피부양인구 비중 과도하게 높아짐, 일부다처제 만연 (출산할 여성들의 과다비율로 인해 인구 유지)
- 중간항해(대서양 횡단)의 참상: 가능한 많은 노예 선적, 높은 사망률, 비위생적 환경
- Zong호 사건- 항해 중 식수 부족하자 132명의 흑인 바다에 폐기=> 1783년 사업주, 보험회사에 '해상위험'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해 줄 것 요구하는 소송제기=> 흑인 1인당 30파운드 배상하라는 판결
- 아프로-아메리카 문화 형성